스위스의 해와 달과 별.

속세를 등지는 로컬들의 여행 법

스위스 로컬들의 은밀한 여행지
스위스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다 특별하게 만나는 체험 여행
별이 빛나는 밤 아래 그대로 몸을 뉘어 잠들 수 있는 곳
스위스의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여행 법
일출, 노을, 보름달, 별이 있는 비밀스런 그곳

스위스 로컬들은 스위스 국내 여행을 어떻게 할까? 관광지에 집이 있고 일터가 있는 그들에게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대자연 속에 사는 스위스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다. 대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명소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을 어렵게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관광 명소를 찾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시간에서 벗어나 적막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

스위스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이 세상 풍요의 원천으로 여겼던 해와 달의 이동 경로를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 그에 대해 해박했다고 믿는다. 그들의 조상은 해와 달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본질적인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믿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선탠을 즐기는 이들,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와 달과 별은 끝없는 매혹의 원천이다. 속세를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무한한 행복감에 젖어볼 수 있는 모험 몇 가지를 소개한다. 스위스 로컬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은밀한 스팟과 그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신박한 체험이다.

1. 빙하 위 별이 빛나는 밤 출사 여행
해발고도 2,000m 위, 알레취(Aletsch) 빙하 위로 쏟아질 듯 빛나는 별이 압도적이다. 사진작가 마르쿠스 아이헨베르거(Markus Eichenberger)가 별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그는 별이 빛나는 밤을 어떻게 카메라에 더 잘 담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초보 사진가도, 전문가도 참가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엑기스호른(Eggishorn)에 있는 호를리 히타(Horli Hitta) 산장과 베트머호른(Bettmerhorn) 레스토랑은 이 잊지 못할 밤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준다.

2. 휘영청 보름밤 리기(Rigi) 하이킹
꿈결을 걷는 하이킹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리기로 가야 한다. 리기산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아름다운 산이다. 리기는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밤에도 그 매력을 발산한다. 비츠나우(Vitznau)-힌터베르겐(Hinterbergen) 사이를 걷는 달빛 하이킹은 리기 정상인 리기 쿨름(Rigi Kulm)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침 시작되는 일출을 감상하다 보면 간밤의 피로가 단번에 풀린다.

그 후에는 리기 정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농가, 섀서렌홀츠(Chäserenholz)에서 풍성한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로컬 가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리기 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소요 시간: 4 시간 – 8 시간
참가비용: 1 인 CHF 79

3. 슈토오스(Stoos)에서 마주하는 선셋과 고요, 그리고 별밤 텐트 숙박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으로 향하는 짧은 능선 코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하이킹 중에는 호수 열 개의 풍경과 셀 수 없이 많은 산봉우리의 풍경뿐이 나타난다. 그림엽서 같은 풍경 속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나면 감성 충만한 별밤이 펼쳐진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큘러를 타고 자동차 출입이 금지된 알프스 마을, 슈토오스에 오를 수 있다. 클링엔슈톡(Klingenstock) 봉우리로 향하는 마지막 체어리프트가 오후 4 시 직전에 운행된다. 클링엔슈톡부터 이어지는 능선 코스 위에 서면 루체른(Luzern)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기막힌 절경이 펼쳐진다. 한 시간 정도 능선을 따라 걸으면 프론알프슈톡에 닿게 되는데,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대해도 좋다. 해발고도 1,920m 위에 있는 호텔에서 잊지 못할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인다. 별이 빛나는 밤을 이곳에서 보내고자 한다면 침낭을 준비해야 한다. 파노라마 텐트가 마련되어 있어 야외 숙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식이 포함된 별밤 숙박은 1 인 CHF 65 다. 3 코스 디너를 원한다면 CHF 40 을 추가하면 된다. 다음날 슈토오스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걸어서 내려가거나 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6 월에서 8 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 일출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미식 하이킹

케이블카를 타고 전설적인 하이킹 트레일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서는 일출을 감상하고, 알프스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산장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완벽한 산안 하이킹 체험은 룽게른(Lungern) 호수 위에 있는 플루온알프(Fluonalp)에서 할 수 있다. 루체른(Luzern)-인터라켄(Interlaken) 익스프레스 기차로 찾아갈 수 있는 룽게른에서 이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된다.

룽게른(Lungern)-투렌(Turren) 케이블카 상부 역에서 이틀간의 아름다운 하이킹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버터플라이 패스(butterfly path)를 따라 트레일이 이어진다. 115 종 이상의 주행성 대형 나비가 이곳에 서식하는데,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나비가 서식하는 곳이다.

짧은 내리막 후에 플루온알프에 닿게 된다. 초록 알프스 들판에 둘러싸여 있는데, 기스빌러슈톡(Giswilerstock) 아래의 자연 및 야생동물 보호 지역과 그 경계를 함께 하고 있다. 자르넨(Sarnen) 호수와 필라투스(Pilatus), 리기(Rigi), 루체른(Luzern) 호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소박한 플루온알프 산장에서는 단출하면서도 아늑한 다인실 숙박을 할 수 있다. 로컬 미식가들은 이곳의 시그니쳐 메뉴, “힌더지마그로넨(Hindersimagronen)”을 추천한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여기에서 치즈 공방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약을 하면 자신만의 고유한 치즈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스빌러슈톡(Giswilerstock: 1,824m)까지 가 본다. 한 시간 만에 닿을 수 있다. 중앙 스위스 알프스의 일출과 파노라마는 이른 등반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 플루온알프로 돌아와 풍성한 알프스식 아침 식사를 하면, 재델(Sädel) 및 애거텐(Ägerten) 숲을 지나 룽게른-투렌 케이블카 역까지 되돌아갈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5 월에서 10 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5. 손만 뻗으면 하늘에 닿을 듯한 그곳, 카이저에그(Kaiseregg)
카이저에그 산봉우리는 베르네제 알프스(Bernese Alps)와 프리부르 알프스 전지대(Fribourg Pre-Alps)의 놀라운 뷰를 선사한다. 꽤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로 오를 수 있는데, 프리부르 지역의 하이킹 마니아들 사이에서 진정한 클래식 루트로 꼽힌다. 일출을 보며 하이킹을 한다면 더 마법 같은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 감동적인 뷰를 담을 수 있다.

슈바르츠제(Schwarzsee) – 카이저에그(Kaiseregg) - 슈바르츠제(Schwarzsee)
멀리 보이는 2,185m 높이의 카이저에그(Kaiseregg)는 슈바르츠제(Schwarzsee) 호수 주변 산 중 가장 높다. 하이킹의 출발점은 릭기스알프(Riggisalp) 케이블카 역으로, 이곳에서부터 잘츠마트(Salzmatt)를 경유해, 악명 높은 카이저에그(Kaiseregg)에 도착하게 된다. 대략 700m 고도에 달하는 등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련된 체력과 안정적인 등반 실력이 요구된다. 힘들지만 일단 오른 후에는 베르너(Bernese) 및 발레(Valais) 알프스의 환상적인 풍경으로 그 노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돌아갈 때도 역시 잘츠마트(Salzmatt)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카이저에그(Kaiseregg) 케이블카 역을 향해 내려가 출발점인 슈바르츠제 호수에 도착하게 된다.

해발고도	2179m
오르막	750m
내리막	1180m
거리	11km
소요 시간	4 시간 30 분
난이도	보통
체력 수준	어려움

6. 선셋 바이크 & 바비큐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회른리 트레일(Hörnli Trail)을 따라 구불구불 페달을 밟아 나아가다가 알펜블릭(Alpenblick) 레스토랑에서 하루의 일정을 바비큐로 마무리할 수 있다. 패키지에는 아드레날린과 선셋이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 동부 아로자(Arosa)에 있는 회른리 트레일은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에게 꼭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할 코스로 유명하다. 알프스 봉우리를 배경으로 100 여 개의 흥미진진한 커브 코스가 나타난다.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코스다.

2018 년에 오픈한 회른리 트레일은 6.8km 나 되는 장거리 코스에 113 개의 커브가 있다. 허벅지가 불타오르지만, 브레이크를 밟기엔 그 흐름이 너무 재미있다. 마치 날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마운틴 바이커들이 케이블카 역에 도착하는 모습에는 커다란 미소가 가득하다.

회른리 트레일은 아로자 렌처하이데(Arosa Lenzerheide) 지역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모든 수준의 라이더에게 적합한 코스이지만, 강펀치를 날릴 수도 있는 코스다. 해발고도 2,482m 에 있는 회른리 익스프레스 케이블카역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오르막 커브를 지나면, 인상적인 암석 지대가 나타난다. 이 트레일 공사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투입됐는지 느껴지는 구간이다. 트레일은 더 개방된 지형과 하우엔제(Hauensee) 호수를 지나는데, 곧 아로자 바이스호른(Arosa Weisshorn) 케이블카 역이 시야에 들어온다. 트레일의 나머지 구간에는 잠시 멈춰 웅장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회른리 트레일은 특히 저녁에 더 아름다운데, 노을을 감상하며 이 코스를 달린 뒤, 알펜블릭 레스토랑에서 바비큐를 즐기기 좋다.

아로자 마을에 있는 회른리 익스프레스 케이블카역에는 스킬 센터(Skill Center)가 있는데, 네 개의 연습용 트레일이 마련된 곳으로, 초보자와 어린이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곳이다.

회른리 트레일은 7 월부터 9 월까지만 운영되며, 총 2-4 시간이 소요된다.

7. 해질녘의 라클렛
높은 산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해 볼 수 있다.
먼저, 플랑 뒤 푸(Plan du Fou)까지 가야 하는데, 발레(Valais) 주의 주도, 시옹(Sion)에서 멀지 않다. 마법 같은 순간은 해발고도 2,430m 위에서 펼쳐진다. 시비에(Siviez)-플랑 뒤 푸(Plan du Fou) 구간 케이블카를 타면 플랑 뒤 푸 레스토랑의 테라스에 앉아 이 웅장한 선셋을 감상할 수 있다. 셋트 메뉴로 구성된 풍성한 디너를 즐길 수 있는데, 발레 지역 건조육 플래터, 라클렛 뷔페, 살구 소르베가 포함되어 있다.

8. 별밤 아래 캠프파이어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 안드레아스 니더만(Andreas Niedermann)과 함께 파르파너 로트호른(Parpaner Rothorn)에 오르는 코스다. 첫 구간에서는 해발고도 2,700m 위에 텐트를 치고, 캠프 파이어 위에서 저녁을 요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체험은 렌처하이데(Lenzerheide) 지역의 자연 한복판에서 펼쳐지는데, 눈 깜빡이는 순간도 아까울 만큼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물론, 참가자들 대부분은 잠을 자는 대신, 꼬박 밤을 새우며 순간순간을 만끽할 것이다. 동이 틀 때까지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있을 수 있다.

자료 제공: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